

강진 농가 푸소체험 소득 '쏠쏠'

(FU-SO)

지난해 체험농가 소득 5억 돌파 올해 목표 7억 3월말 기준 학생·공무원 예약인원 1만명 육박

강진군 '푸소(FU-SO: FeelingUp-Stress Off) 체험'이 지난해 체험농가 전 체소득 5억원을 넘어서는 등 지역 농가소득의 귀중한 뒷줄이 되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6농가가 참여한 농가당 연평균 100만원 수준이었던 소득이 지난해는 121농가가 참여해 농가당 평균 5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렸다. 체험 농가들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5억원을 넘어서었다. 올해 목표는 7억원이다. 푸소체험 운영농가인 한 귀촌인은 "푸소체험에 참여한 대도시,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한 것은 행운이다"며 "주부로서, 생활인으로서 솔직하게 소득이

짊짊하다. 다른 집들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벌었다"고 밝혔다. 소득과 비례해 푸소체험 참여도 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4년째에 접어들면서 3월말 현재 기준으로 푸소체험을 신청하거나 예약한 학생은 7,254명이다. 공무원 1,950명, 민간인 143명을 합하면 1만명에 이른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대전 중앙중 2학년생 100명이 푸소체험했다. 지난해 서울 청운중에 이어 충청권 중학생들이 강진을 찾은 것이다. 오는 5월에는 서울 동성중 학생 120명에 이어 같은 달 경기도 안성 비룡초 어린이



최근 1박2일 일정의 푸소체험을 신청, 강진군을 찾은 주한 외국인들이 농가에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있다.

이들이 푸소체험에 동참한다. 서울 청운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2박3일간 강진을 다시 찾는다.

여기에 수도권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 강진에서의 하룻밤을 선사하고 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의 관광정책에 적

극 공감, 강진 나들이를 계획한 서울 소재 '여행공방'을 통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70명의 외국인이 강진 푸소 체험에 나섰다. 여행공방 강호선 대표는 "강진이 갖고 있는 여행관광 요소들은 외국인들이 보고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면서 "청자 축제와남도음식문화큰잔치 뿐만 아니라 이번 푸소체험 역시 강진의 특성과 강점을 충분히 반영한 일정이라서 모두가 좋아했다"고 말했다.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푸소체험 담당자는 "강진은 다산 정약용 유적지와 영랑 김윤식 생가 등 역사문화유적이 많아 '남도답사 1번지'로 불리고 있다"며 "지난해 강진 방문의 해 성공에 이어 올해는 'A로의 초대' 정책에다 푸소체험 프로그램을 덧붙여 더욱 많은 이들이 강진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주목! 이사람



고길호 신안
군수는 13일 오후 2시 임자면에서 열리는 신안튠립축제에 참석한다.



이동진 진도
군수는 13일 오후 2시 군청 군수실에서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기탁식을 갖는다.



박현식 완도
부군수는 13일 오후 3시 군청 부군수실에서 의왕상해 등보 상심의회를 개최한다.



신안군은 지난 11일 신의면에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천후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가졌다.

신안 하의·신의면 게이트볼장 준공

지역 어르신 건강 증진·친목 도모 역할

신안군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11일 하의면과 신의면에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천후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하의면과 신의면에 설치된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 1동과 편의시설 1동으로 조성됐으며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됐다. 고길호 군수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준공돼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종합복지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금강산성 고려 대몽항쟁기 축조”

해남 정밀지표·시굴조사...18일 학술세미나

해남의 진산(鎭山)인 금강산에 위치한 금강산성이 몽고군의 침입시 백성들의 피난을 목적으로 축조한 고려 시대 산성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재)고대문화재연구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금강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결과 해남 금강산성은 축조양상 및 유물로 보아 고려시대 대몽항쟁기 협한 산성에 들어가 지키기 위해 산성입보(山城入保)용으로 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읍을 둘러싸고 있는 금강산(488m)에 위치한 금강산성은 정상부의 산정을 분기점으로 북동쪽과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과 이들 능선사이에 형성된 골짜기를 막아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다. 성벽의 총 길이는 1,087m로 남동-북서의 장방형에 가까운 평면 형태를 보인다. '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에 '옛성(古城)'으로 기술돼 있을 뿐 정확한 축조연도를 알 수 없어 현재는 잔존성벽만 남아 있다. 조사결과 금강산성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일부구간은 성벽을 쌓지 않고 협준한 암벽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지형조건에 따라 능선부는 내탁식으로, 계곡부는 협곡식으로 축조하는 등 13세기 중반 몽고침입기 고을 백성들의 피난을 목적으로 축조된 입보용(入保用) 산성과 비슷한 양상이다. 또 동·서·남·북쪽의 성벽과 4개의 문지(門址), 치(雉), 용도(甬道), 집수지(集水址), 건물지(建物址), 봉수

(烽燧)등도 확인돼 이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강산성은 13세기 중반 진도 용장산성과 함께 축조돼 14세기 왜구 침입기를 거쳐 해남읍성이 축조되면서 세종 16년 폐지될 때까지 입보용 산성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강산성의 조사성과와 의의' 학술세미나를 오는 18일 오후 2시 해남문화원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해남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27호로 지정돼 있는 금강산성의 학술·역사성, 문화재 가치를 부각시켜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진도 아리랑 탁구장 정식 개장

전용 탁구장 확보 동호인 저변확대 기대

진도군이 지역 탁구동호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진도 아리랑 탁구장을 최근 개장했다. 이 탁구장은 2016년 9월 착공해 지난 3월에 준공했으며,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진도 아리랑 탁구장은 사업비 8억 4,000만원이 투입돼 진도읍 동리길 일원 500㎡의 부지에 지상 1층 건물로 마련됐다. 탁구장은 10면의 탁구대 설치 가능한 경기장,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의

현대식 시설을 갖춰 군내 동호인들이 탁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개관을 기념해 전남 서남부 탁구클럽 30개팀 150여명이 참여한 전남 서남부 탁구 동호회 클럽 리그전도 개최됐다. 정대진 진도군탁구협회장은 "탁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돼 매우 기쁘다"며 "군민 건강증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비롯, 진도군 탁구발전과 동호인 저변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시민 삶 재조명 '목포시사' 발간

'항도 목표' 등 5권 목포 역사 재정리

목포시가 목포의 발전 과정, 지역민의 삶과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조명한 '목포시사' 발간, 지난 11일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발간 기념식을 가졌다. 20년 만에 새로 쓴 '목포시사'는 '항도 목표', '예향 목포', '일등 목포', '터전 목포', '기록 목포' 등 총 5권으로 구성됐다. 1권 '항도 목표'에는 자연환경부터 시작해 도시형성과정, 해운항만산업 등을

정리했다. 2권 '예향 목포'에는 문학, 음악·연극·무용·국악·마당극 등 공연예술, 미술·조각·서예·사진 등 시각예술을 정리했다. 3권 '일등 목포'는 정치, 행정, 산업 및 경제, 기업, 시민사회, 언론, 복지 및 의료 등으로 목차를 구성했다. 4권 '터전 목포'는 생활사·문화사적 접근을 통해 목포시민의 삶을 생생하게 서술했다. 5권 '기록 목포'는 발로 뛰며 찾아낸



목포시사. 개인 소장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자료들은 대부분 새로 소개되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 관내의 기관·단체에서 소장한 목포 관련 역사자료, 인물자료, 사진자료들이 폭넓게 수집·정리됐다. /목포=강성우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목포 010-3272-2765
011-632-0323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클릭! 내고장 소식



강성복 전남경찰청장 고흥 방문

고흥경찰서는 지난 1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이 최고로 편안한 전남'이라는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동범죄예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주장차 특별관리, 노인교통사고 예방 등 고흥경찰서 18년 주요추진업무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강성복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흥=진중원 기자



여수 희망하우스 9호 준공

여수시는 지난 11일 9번째 희망하우스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주철현 여수시장과 이오식 삼남석유화학 공장장, 화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희망하우스는 여수시의 민관협력 복지사업으로 후원자들의 도움을 통해 복지대상자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삼남석유화학 관계자는 "희망하우스 사업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함평 미용업주 위생 교육

함평군은 지난 11일 함평전지한우프라자 회의실에서 관내 미용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군과 대한미용사회 전남서부지부가 연계해 실시한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과 미용업 위생관리 및 친절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함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용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장성 '내 혈압 알기' 캠페인

장성군 보건소는 최근 황룡시장에서 '내 혈압 내 혈당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보건소는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 상담을 하며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심뇌혈관 예방 관리에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렸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